

에스겔 8-19장의 구성과 메시지: 백성의 불평과 야웨의 답변을 중심으로*

김래용(협성대)

1. 서론

에스겔 8-19장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라는 날짜 문구 (dating formula)에 의해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는데,¹ 3가지의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이 단락의 메시지가 다양한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야웨의 말씀이 환상(겔 8-11장), 상징적 행동(겔 12장), 신탁(겔 13-14장, 18장), 비유(겔 15-17장), 애가(19장)와 같은 양식을 통해 전달된다. 둘째는 이 단락의 메시지 안에 백성들의 삶과 관련된 불평과 의심과 속담 및 수사적 질문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겔 8:12b; 9:9b 참조).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목시가 사라지리

* 이 연구는 2023년도 협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23-0030).

1 Marvin A. Sweeney, *Reading Ezekiel*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Inc., 2013), 51.

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겔 12:22; 12:27 참조).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겔 15:2-5).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겔 18:19a; 18:2 참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겔 18:29a; 18:25a 참조). 셋째는 이 단락이 백성들의 불평과 의심에 대한 야웨의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² 그런데 독특하게도 야웨의 답변을 위해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스겔서의 앞부분(겔 1-32장)은 심판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고, 뒷부분(겔 33-48장)은 회복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에스겔 8-19장에는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뒤섞여 나타난다.³ 그리하여 일부의 학자들(Walter Eichrodt:

2 블렌킨소프(Joseph Blenkinsopp)는 에스겔서에 여러 번(겔 8:12; 9:9; 11:3-12, 15-16) 나타나는 인용-답변 양식이 에스겔의 설교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선지자와 백성들 사이의 맞닥뜨린 실제 상황으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보았다. Joseph Blenkinsopp, *Ezekiel*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67; 렌즈(Thomas Renz)는 에스겔 8-19장의 일부분이 이의-답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에스겔 8-11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의에 대한 답변이며, 에스겔 12장 21절-13장 23절은 이 심판이 먼 미래를 위한 것이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았다. Thomas Renz,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Boston: Academic Publishers, Inc., 2002), 62; 블록(Daniel I. Block)은 에스겔 8-11장을 이의-답변 구조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장로들과 백성들의 불평(“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겔 8:12b; 9:9b 참조)을 단순히 우상숭배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들의 변명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에스겔 12장 21-28절의 묵시에 관한 백성들의 의문(“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27절)을 냉소-반박의 구조로 보았고, 에스겔 18장이 복잡한 논쟁 연설 형태를 띠는데, 이것이 속담-반박의 구조를 지닌다고 보았다. 대니얼 블록, 『에스겔 I』 (신윤수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369-370, 486-495, 693-694. 원제는 Daniel I. Block,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7).

3 알베르트(Rainer Albertz)는 에스겔 1-24장의 심판의 말씀 안에 다음과 같은 회복의 말씀(겔 5:3; 6:8-10; 11:14-20; 12:16; 14:11, 22-23; 16:53-58, 59-62; 17:22-24; 20:32-44)이 나타나고, 또한 에스겔 33-48장의 회복의 말씀 안에 다음과 같은 심판의 말씀(겔 33:23-29; 34:1-10, 17-22; 35장)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라이너 알베르트, 『포로시대의 이스라엘』 (배희숙 옮김), (고양: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6), 463. 원제

Walther Zimmerli; Thomas M. Raitt)은 이 단락에 나타나는 회복의 메시지가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았고,⁴ 반대로 일부의 학자들(Paul M. Joyce; Rainer Albertz)은 회복의 메시지가 본래적인 것으로 보았다.⁵

이처럼 에스겔 8-19장은 독특한 구성과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단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 야웨의 답변이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두 메시지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

는 Rainer Albertz, *Die Exilzeit vor 6. Jahrhundert v. Chr* (Stuttgart: Kohlhammer GmbH, 2001). 유사한 주장을 위해 권오현, 「에스겔의 예언과 신학 연구 1」 (서울: 한마음세계선교회출판부, 2007), 117 참조.

- 4 아이히로트(Walter Eichrodt)는 에스겔 1-24장의 심판의 말씀에 나타난 회복의 말씀(겔 6:8-10; 11:14-21; 16:44-63; 17:22-24)이 후대의 산물로 구원의 희망을 주기 위해 혹은 심판 설교의 보완물로서 후대에 추가되었다고 보았다. 아이히로트, 「에제키엘」(강원돈/김상기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125, 259-260, 334. 원제는 Walter Eichrodt, *Der Prophet Hesekie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침멀리(Walther Zimmerli)는 심판의 말씀 안에 나타나는 회복의 말씀의 일부는 후대의 추가이며(겔 6:8-10; 11:14-21; 14:21-23; 17:22-24), 일부는 본래의 것으로 결론 역할(겔 16:53-58, 59-63; 20:32-44)을 한다고 보았다. Walther Zimmerli, *Ezekiel 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185, 263, 313, 352, 367, 414; 레이트(Thomas M. Raitt)는 에스겔서에 15개의 회복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11개는 에스겔의 것이며(겔 11:16-21; 16:59-63; 17:22-24; 20:40-44; 28:25-26; 34:11-16, 20-24, 25-31; 36:9-15, 22-32, 33-36; 37:11-14, 19-23, 24-28; 39:25-29), 3개는 후대에 추가된 것이고(겔 16:59-63; 17:22-24; 28:25-26), 1개는 진성성에 의문을 남긴다(겔 39:25-29)고 보았다. Thomas M. Raitt, *A Theology of Exile: Judgment/Deliverance in Jeremiah and Ezekiel*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109-110.
- 5 조이스(Paul M. Joyce)는 에스겔 1-24장에 4개의 회복의 말씀(겔 11:14-21; 16:59-63; 17:22-24; 20:40-44)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히 선지자가 이러한 회복의 말씀을 주전 587년 이전에는 선포할 수 없다는 교리적 가정(dogmatic assumption)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aul M. Joyce, *Ezekiel: A Commentary* (New York: T&T Clark, 2007), 109-110; 알베르츠는 에스겔 1-24장에 심판의 말씀이 배치되고 에스겔 33-48장에 회복의 말씀이 배치되어 심판의 말씀에서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경향이 에스겔 1-24장에도 나타난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이 단락에 처음부터 회복의 말씀을 배치하여 심판 설교가 구원 설교로 귀결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라이너 알베르츠, 윗글, 463-464; ब्ल록은 에스겔 1-24장에 나타나는 4개의 회복의 말씀(겔 6:8-10; 11:17-20; 16:60-63; 20:39-44)이 없었다면 이 단락이 저주의 신탁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회복의 말씀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니얼 ब्ल록, 윗글, 53-54.

다. 여기에서는 이 단락이 철저하게 불평-답변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을 위해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사용되고, 특별히 후자가 전자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회복의 메시지가 후대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와 쌍을 이루어 못다 한 답변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에스겔 8-19장을 내용과 구조와 양식을 중심으로 4개의 단락(겔 8-11장; 12-14장; 15-17장; 18-19장)으로 나누고,⁶ 각각의 단락의 구조와 내용과 표현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에스겔 8-19장의 구성과 메시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스겔 8-19장은 4개의 단락(겔 8-11장; 12-14장; 15-17장; 18-19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단락은 불평/

6 학자들의 에스겔 8-19장의 구조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블렌킨소프는 3개의 단락(겔 8-11장; 12-14장; 15-19장), 블록은 6개의 단락(겔 8:1-11:25; 12:1-20; 12:21-14:11; 14:12-15:8; 16:1-63; 17:1-22:31), 알렌(Lealie C. Allen)은 8개의 단락(겔 8:1-11:25; 12:1-20; 12:21-14:11; 14:12-15:8; 16:1-63; 17:1-24; 18:1-32; 19:1-14), 아이히로트와 할스(Ronald M. Hals)는 11개의 단락(겔 8:1-11:25; 12:1-20; 12:21-28; 13:1-23; 14:1-11; 14:12-23; 15:1-8; 16:1-63; 17:1-24; 18:1-32; 19:1-14), 그린버그(Moshe Greenberg)는 12개의 단락(겔 8:1-11:25; 12:1-16; 12:17-20; 12:21-28; 13:1-23; 14:1-11; 14:12-23; 15:1-8; 16:1-63; 17:1-24; 18:1-31; 19:1-14), 스위니(Marvin A. Sweeney)는 13개의 단락(겔 8:1-11:25; 12:1-7; 12:8-16; 12:17-20; 12:21-25; 12:26-28; 13:1-23; 14:1-11; 14:12-23; 15:1-8; 16:1-63; 17:1-24; 18:1-19:14), 침벌리도 13개의 단락(겔 8:1-11:25; 12:1-16; 12:17-20; 12:21-25; 12:26-28; 13:1-23; 14:1-11; 14:12-23; 15:1-8; 16:1-63; 17:1-24; 18:1-32; 19:1-14)으로 나눈다. Joseph Blenkinsopp, *윗글*, 51-86; 대니얼 블록, *윗글*, 344-905; 레슬리 C. 알렌, 「에스겔 1-19」 (김경열 옮김), (서울: 솔로몬, 2009), 247-550. 원제는 Leslie C. Allen, *Ezekiel 1-19* (WBC 28;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4); 아이히로트, *윗글*, 137-306; Ronald M. Hals, *Ezekiel* (FOTL 19;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9), 46-131; Moshe Greenberg, *Ezekiel 1-20* (AB 22;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3), 164-359; Marvin A. Sweeney, *윗글*, 51-100; Walther Zimmerli, *윗글*, 215-398 참조.

의심-답변의 형식을 지닌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답변을 위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사용되는데, 2개의 단락(겔 8-11장; 15-17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앞부분에 배치되고 회복의 메시지가 뒷부분에 배치되어 후자가 전자를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단락(겔 12-14장; 18-19장)에서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뒤섞여 나타나는데, 특별히 후자는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사랑과 관심을 부각한다.

1) 에스겔 8-11장

에스겔 8-11장은 환상과 예루살렘 심판 모티프를 사용해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와 이로 인한 야웨의 심판을 언급한다.⁷ 야웨는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행위와 이로 인해 야웨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됨을 보여준다.⁸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러한 메시지가 문답 형식을 지닌다.⁹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겔 8:12b),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겔 9:9b)라고 불평하였고, 야웨는 환상을 통해 이들의 불평에 답변한다. 따라서 이 단락은 ‘백성들의 불평 + 야웨의 답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러한 답변을 위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가 사용된다. 길고 구체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단락의 앞(겔 8:1-11:13;

7 Marvin A. Sweeney, *Form and Intertextuality in Prophetic and Apocalyptic Literature* (Tübingen: Mohr Siebeck, 2005), 144-155; Donald E. Gowan, *Ezekiel*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50-56; Moshe Greenberg, *윗글*, 164-206; Walther Zimmerli, *윗글*, 215-264.

8 에스겔 8-11장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성읍을 버리셔서 적군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었느냐는 예루살렘 패망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절박한,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권오현, 「에스겔의 예언과 신학 연구 2」(서울: 한마음세계선교회출판부, 2007), 291.

9 Thomas Renz, *윗글*, 62; Donald E. Gowan, *윗글*, 50-56.

11:22-25)에 배치하여 백성들의 불평에 답변하고, 간략한 회복의 메시지를 뒤(겔 11:14-21)에 배치하여 앞에서 못다 한 답변을 보강한다.

(1) 심판의 메시지

에스겔 8-11장의 심판의 메시지는 불평-답변의 구조로 보면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을 위해 백성들의 반역에 초점을 맞춘다.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 ‘야웨가 그들을 보지 않게 되었고’,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 ‘야웨가 이 땅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인 것이다. 이것은 이 단락의 앞부분(겔 8:6)에 명확하게 강조된다. “그들[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2가지가 강조된다. 하나는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 야웨가 성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에스겔 8-11장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첫째로 백성들의 야웨에 대한 반역이 자세하게 기술된다. 이것은 에스겔 8장에 집중적으로 묘사되는데, 특별히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가 4번에 걸쳐서 반복된다.¹⁰ 이스라엘 족속이 제단 문어귀 북쪽에서 행한 큰 가증한 일(5-6절), 장로 70명이 뜰 문 안쪽 방에서 행한 큰 가증한 일(7-13절),¹¹ 여인들이 북문에서 행한 큰 가증한 일(14-15절), 약 25명이 야웨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행한 큰 가증한 일(16절)이 열거된다. 이러한 4번의 반복은 성전의 구석구석이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온상이었으며, 모든 계층이 빠짐없이 야웨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음

10 Walther Zimmerli, 윗글, 230; Joseph Blenkinsopp, 윗글, 53-57.

11 블렌킨소프는 이들의 가증한 행위가 정치적인 목적(예급 신의 지지)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야웨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함축한다고 주장한다. Joseph Blenkinsopp, 윗글, 55.

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이러한 가증한 행위가 야웨의 무관심을 유발하고, 야웨로 하여금 성소를 버리고 떠나게 하였다는 것이다.¹² 백성들의 불평 원인을 야웨가 아닌 백성들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¹³ 둘째로 야웨께서 성전을 떠났다는 사실이 자세하게 기술된다. 이것은 에스겔 9-11장에 집중적으로 부각되는데, 특별히 야웨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과정이 4단계로 묘사된다. ‘지성소의 그룹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함’(겔 9:3; 10:4),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날개 달린 그룹으로 이동함’(겔 10:18), ‘날개 달린 그룹을 타고 동문으로 이동하여 그 위에 덮임’(겔 10:19), ‘성읍 가운데서 성읍 동쪽 산으로 이동하여 머물게 됨’(겔 11:22).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지성소에 있던 야웨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나와 동문과 성읍 가운데를 지나 성읍 동쪽 산으로 떠나게 됨을 강조한다.¹⁴ 야웨께서 성전을 단번에 떠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야웨의 영광이 단계적으로 성전을 떠나고 있음을 묘사한다. 야웨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주변을 맴도는 느낌을 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야웨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기 싫었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묘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마디로 야웨께서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지도 않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버릴 의도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⁵

(2) 회복의 메시지

이러한 야웨의 답변은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더 강화된다. 심판의

12 Moshe Greenberg, *윗글*, 170.

13 한동구, “에스겔의 성전 비판과 야웨의 성전되심(겔 8-11장)”, 『구약논단』 56집 (2015년 6월), 21.

14 *윗글*, 30-31.

15 Kathryn P. Darr, “The Book of Ezekiel”, Leander E. Kect et al.(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ume 6*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1176, 1180.

메시지를 통해 야웨의 무관심과 땅의 버림이 ‘백성들의 배반’에 기인했음을 강조하였다면,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사랑과 관심’을 강조한다. 야웨가 백성들을 보지 않고, 그들이 사는 땅을 버린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야웨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끝까지 관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심판의 메시지에서 못다 한 답변을 뒤에 배치된 회복의 메시지에서 보강하는 것이다. 이것은 에스겔 11장 16-21절에 언급된 3가지의 회복의 약속을 통해 잘 드러나는데, 특별히 에스겔의 뒷부분(겔 33-48장)에서 강조된 회복의 약속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첫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성소에 관한 약속이다. 에스겔 11장 16절에 나타나는데, 유사한 표현이 에스겔 37장 26-28절에 언급된다. 불평과 답변의 관점으로 볼 때 전자와 후자 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에스겔 11장 16b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2가지의 독특한 표현을 볼 수 있다. 하나는 ‘내가 그들을 위해 성소가 될 것이다’(שָׁמְרָה לָהֶם לְמִקְדָּשׁ)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야웨가 성소가 된다’라는 의미보다 ‘야웨가 성소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야웨가 포로 공동체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다.¹⁶ 포로 이전에 함께했던 것처럼 포로지에서도 함께하겠다는 야웨의 약속인 것이다. 따라서 שָׁמְרָה לָהֶם(미크다쉬/성소)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런 점에서 이 약속은 백성들의 불평(‘야웨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에 가장 적합한 답변 역할을 한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잠깐’(זָמַן בְּאַרְצוֹת אֲשֶׁר-בָּאוּ)이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זָמַן(메아트/잠깐)라는 단어를 사용해 포로 기간이 길지 않다는

16 Marvin A. Sweeney, *읽글*, 68.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이다.¹⁷ 야웨께서 이들을 잠깐 심판하실 것이며, 머지않아 그들에게 귀환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이다. 야웨의 사랑과 관심을 **טַמַּנָּה**를 사용해 강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웨께서는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지도 않고 그 땅을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답변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16b절을 후대의 추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에스겔 37장 26-28절의 성소에 관한 묘사와 비교하면 더 명확해진다.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26b절의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라는 표현인데, 위의 구절(겔 11:16b)과 비교하면 2가지 차이를 보인다. 하나는 ‘내가 나의 성소를 세우리라’(אֶת־מִקְדָּשִׁי)는 표현이다. 여기에서 נִתְּחִי(나타티)는 ‘야웨가 성소를 건축하도록 허락한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מִקְדָּשִׁי는 하나의 건물을 의미한다. 위에서 처럼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그들 가운데 영원히’(בְּתוֹכָם לְעוֹלָם)라는 표현이다. 앞에서는 ‘잠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포로 기간이 짧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 여기에서는 ‘영원히’라는 표현을 사용해 귀환한 이후의 삶이 야웨와 함께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겔 11장 16b절의 성소에 관한 약속은 당시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야웨의 이상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두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귀환에 관한 약속이다. 에스겔 11장 17절에 나타나는데, 유사한 표현이 에스겔 36장 24절에 언급된다(겔 34:13a; 37:21 참조).¹⁹ 불평과 답변의 관점으로 볼 때, 전자와 후자 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에스겔 11장 17절을 보면 2가지 독특한 점이 발견된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내가 너희

17 한동구, 윗글, 24-25.

18 Bruce Vawter and Leslie J. Hoppe, *A New Heart: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zekiel*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1), 75.

19 Thomas M. Raitt, 윗글, 124, 132; Bruce Vawter and Leslie J. Hoppe, 윗글, 75-76.

를 흠어진 땅들로부터 모으리라'(**נִפְצוּתְהֶם אֲשֶׁר מִן־הָאֲרָצוֹת**)
וְאֵסַף מִן־הָעַמִּים וְאֵסַף מִן־הָאֲרָצוֹת אֶתְכֶם! 17a β - γ 절)는 말씀이다. 여기에서 인상적
인 것은 '흠어진 땅들'이라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백성들을 흠
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백성들을 누가 흠었는가? 앞에서(겔
11:16a γ) 야웨는 '내가 그들을 그 땅들에 흠었다'(**הִפִּיצוּתִים בְּאֲרָצוֹת**)라
고 명확히 밝힌다.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로 인해 야웨께서 직접 그들을
이방 땅에 흠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덧붙여진
다. 그것은 바로 야웨가 백성들을 흠었지만, 그들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야웨께서 백성들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흠어진
모든 곳에서 모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2개의 1인칭 동사(**קִבְּצַתִּי**,
כִּפְתִּי)를 사용해 야웨의 의지를 보여주고, 2개의 포로지와 관련된 표현
(**מִן־הָעַמִּים**, **מִן־הָאֲרָצוֹת**)을 사용해 야웨의 관심을 부각한다. 절대로 백
성들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답변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가 너
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리라'(**וְנָתַתִּי לָכֶם אֶת־אֲדָמַת יִשְׂרָאֵל**) 17b절)는 말
씀이다. 불평과 답변의 관점으로 볼 때, '내가 주리라'(**נָתַתִּי**)는 1인칭 동
사는 의도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앞에서 '야웨가 이
땅을 버리셨다'(**יָהוָה אֶת־הָאָרֶץ**)라며 불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다'라는 동사를 사용해 야웨께서 땅을 버릴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에스겔 36장 24절의 말씀과 비교하면
더 명확해진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로부터 취하고(**לְקַחְתִּי**), 내가 너
희를 모든 땅들로부터 모으고(**קִבְּצַתִּי**), 내가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오
리라'(**הִבֵּאתִי**). 3개의 동사를 사용해 고국으로의 귀환에 초점을 맞춘다.
'주다'라는 동사 대신에 '데려오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흠어진 땅' 대
신에 '오랫동안 거주하던 땅'으로부터의 귀환을 암시한다. 두 본문 모두
귀환에 대한 야웨의 약속이지만,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

세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정화에 관한 약속이다. 이것은 에스겔 11

장 18-20절에 나타나는데, 유사한 표현이 에스겔 36장 25-28절에 언급된다(겔 37:23 참조).²⁰ 불평과 답변의 관점으로 볼 때, 전자와 후자 사이에 2가지의 차이를 보인다. 에스겔 11장 18-20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가증한 것’에 대한 언급의 여부이다. 18절은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에스겔 36장 25b절은 전혀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모든 우상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두 본문에서 제거의 대상이 다르지만 모두 우상과 관련된 표현들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에스겔 11장 18절은 ‘가증한 것들’의 제거를 강조한다. 고국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가증한 것들의 제거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앞에서 백성들의 반역 행위로 가증한 것들이 4번이나 반복되었기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가증한 것들의 제거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 따라서 ‘가증한 것들의 제거’를 통한 정화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로 ‘한마음’에 대한 언급의 여부이다. 백성들이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이유로 ‘한마음’이 제시된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야웨는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주고,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그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בָּרֶבֶב לִבָּאֵלֹהִים וְנָתַתִּי לָהֶם לֵב אֶחָד וְנָתַתִּי לָהֶם לֵב אֶחָד)고 말한다. 여기에서 ‘한마음’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야웨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한다.²¹ 더 이상 가증한 것과 야웨

20 Thomas M. Raitt, *윇글*, 124, 132.

21 박철우, 「에스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34; 대니얼 블록, *윇글*, 444. 다른 주장을 위해 Paul M. Joyce, *윇글*, 116; 김창대, 「에스겔서의 해석과 신학」(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162 참조.

를 저울질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음을 야웨께서 주시기에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4개의 1인칭 동사(נָתַתִּי, אֶתְּךָ, וְהִסְרֹתִי, נָתַתִּי)를 사용해 ‘한마음’이 야웨를 통해 주어졌음을 강조한다. 한마디로 야웨께서 백성들이 온전히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다.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에스겔 36장 26절에는 ‘한마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²²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주고, 내가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הָאֲבֹן מִבְּשָׂרְכֶם וְנָתַתִּי לָכֶם לֵב בָּשָׂר) (נָתַתִּי לָכֶם לֵב חָדָשׁ וְרוּחַ חַדְשָׁה אֶתְּכֶם וְהִסְרֹתִי אֶת־לֵב הָאֲבֹן מִבְּשָׂרְכֶם וְנָתַתִּי לָכֶם לֵב חָדָשׁ וְרוּחַ חַדְשָׁה אֶתְּכֶם וְהִסְרֹתִי אֶת־לֵב הָאֲבֹן מִבְּשָׂרְכֶם וְנָתַתִּי לָכֶם לֵב חָדָשׁ וְרוּחַ חַדְשָׁה אֶתְּכֶם וְהִסְרֹתִי אֶת־לֵב הָאֲבֹן מִבְּשָׂרְכֶם וְנָתַתִּי לָכֶם לֵב חָדָשׁ וְרוּחַ חַדְשָׁה אֶתְּכֶם). 특이하게도 ‘한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고 있다. ‘새 마음과 새 영’, ‘돌 같은 마음과 살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균형을 맞추고 있다. 에스겔 18장 31aβ절에도 ‘새 마음과 새 영’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따라서 에스겔 11장 19절의 ‘한마음’은 의도적인 표현으로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를 끊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그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야웨의 관심을 보여주는 표현이다(20절). 한마디로 ‘야웨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야웨의 답변을 위한 특별한 표현인 것이다.

2) 에스겔 12-14장

에스겔 12-14장은 상징적 행동과 묵시 모티프를 사용해 ‘허탄한 묵시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찾는 우상숭배자들’의 심판을 언급한다.²³ 상징적 행동을 통해 에스겔의 묵시가 성취될 것을

22 Thomas M. Raitt, 윗글, 182-183.

23 블렌킨소프는 에스겔 12-14장에 다양한 주제가 나타나지만, 모든 주제가 에스겔의 선지자로서의 신뢰에 대한 변호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Joseph Blenkinsopp, 윗글, 64-65.

암시하고, 묵시 모티프를 사용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런데 이 단락도 앞에서처럼 백성들이 묻고 야웨가 답변하는 문답 형식을 취한다. 앞부분에 백성들의 의문을 배치하고, 뒷부분에 야웨의 답변을 배치하여 당시 백성들의 의문을 해소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단락을 시작하는 에스겔 12장에 배치된 의문은 다음과 같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겔 12:22).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겔 12:27). 이러한 의문에 대한 야웨의 답변은 에스겔 13-14장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강조된다. 따라서 ‘백성들의 의문 + 야웨의 답변’의 구조를 지닌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와 뒤섞여 나타나는 회복의 메시지에 백성들의 불평(‘야웨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회복의 메시지가 야웨의 답변 역할을 한다.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

에스겔 12장은 선지자의 2개의 상징적 행동을 묘사하는데, 하나는 포로의 행장을 메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징적 행동이며, 다른 하나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는 상징적 행동이다. 이러한 상징적 행동에 강조되는 표현이 있다. 그것은 바로 לְעֵינֵיהֶם(레에네헴/그들의 목전에서)이라는 표현이다(3절, 4절, 5절, 6절, 7절). 백성들이 보는 앞에

송병현은 에스겔 12-14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묶고, 이것이 A. 진실(겔 12:1-20)과 B. 반응(겔 12:21-28), A'. 거짓(겔 13:1-23)과 B'. 반응(겔 14:1-11)의 구조를 지닌다고 보았다. 송병현, 『에스겔』(서울: 도서출판 이엠, 2017), 246-284. 다른 구조분석을 위해서 Thomas Renz, 윗글, 72-75 참조.

서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려움에 싸여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이 야웨의 말씀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3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목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나”(22절). 이렇게 부정적인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 야웨는 상징적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²⁴ 한마디로 야웨의 심판이 더디리라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상징적 행동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야웨는 그들의 의심에 명확하게 답변한다.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25-28절). 이처럼 에스겔 12장은 상징적 행동과 야웨의 명확한 답변을 통해 백성들의 의심을 해소한다.

이제 에스겔 13-14장에서는 백성들의 의심을 이끈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과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거짓 선지자/선지자를 찾는 백성들의 심판을 다룬다. 그런데 이들의 심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회복이 암시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사랑과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야웨가 무관심하다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인 것이다. 이것은 에스겔 13-14장에서 3번이나 강조된다.

첫째는 거짓 남자 선지자들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 강조된다(겔 13:1-16). 이들은 ‘허탄한 목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친 자들’인데,²⁵ 야웨는 이들의 심판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

24 아이히로트, 윗글, 186; Joseph Blenkinsopp, 윗글, 65.

25 ‘허탄한 목시’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 윤동녕, “에스겔서에 사용된 ‘허탄한 목시’(כִּזְבוֹן יָדָא/하준 샤브)의 의미와 기능 연구: 에스겔서 13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3집 (2014년 9월), 198-222 참조.

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10a절). 심판의 이유로 야웨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했기 때문’(מִן־אֲחֵי־עַמִּי וְרֵעֵי־בְרִיָּאִי וְעַם־יִשְׂרָאֵל)이라고 말한다. 이제까지 백성들은 야웨에게 반역하고, ‘야웨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며 불평하였다. 그러나 야웨는 오히려 이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유혹하여 불행에 빠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다. 철저하게 야웨의 백성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야웨의 백성에 대한 관심이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의 내용에서도 부각된다. 특별히 3개의 부정어를 포함한 동사를 통해 강조된다(9절). ‘내 백성의 공회에 그들이 있지 못하리라’(לֹא־יִהְיֶה),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그들이 기록되지 못하리라’(לֹא־יִכְתָּבוּ),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리라’(לֹא־יָבֹאוּ).²⁶ 3개의 부정어를 포함한 동사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백성들과 분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개인(‘내 백성’)과 공동체(‘이스라엘 족속’)와 땅(‘이스라엘 땅’)을 언급함으로써 둘 사이의 철저한 분리를 강조한다.²⁷ 거짓 선지자에게 조금도 현혹되지 않게 하겠다는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관심이다.

둘째는 거짓 여자 선지자들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 강조된다(겔 13:17-23). 이것도 앞의 예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야웨는 이들을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거짓 선지자들로 묘사한다. 이들은 야웨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보리와 떡’)을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어 백성들을 죽음으로 인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야웨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도 야웨의 백성에 대한 관심이 강조된다.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21a절). “너희가 다시는

26 이 구절에 언급된 ‘공회’와 ‘호적’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 아이히로트, 윗글, 203; 레슬리 C. 알렌, 윗글, 400 참조.

27 아이히로트, 윗글, 203.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점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23절).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는 목적이 철저히 백성들의 구원과 연결된다. 여기에서 2가지 표현이 인상적이다. 하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너희 손으로부터 건지리라’(הַצִּלְתִּי אֶת־עַמִּי מִיָּדְכֶן)는 표현이다. 이것은 현재적인 것으로 거짓 선지자에게 현혹되어 있는 백성들을 당장 구원하겠다는 야웨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별히 ‘나의 백성’(עַמִּי)과 ‘내가 건지리라’(הַצִּלְתִּי)는 표현은 야웨의 의지적 결단을 부각한다. 다른 하나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점복도 못할지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미래적인 것으로 더 이상 백성들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겠다는 야웨의 의지적 표현이다.²⁸ 결코 그러한 일이 계속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백성에 대한 야웨의 관심인 것이다.

셋째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 강조된다(겔 14:1-23). 이 당시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선지자를 찾아가 야웨의 뜻을 묻고 있었으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허탄한 묵시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이들에 대하여 야웨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10절)라고 말한다. 야웨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심판의 이유가 백성들에 관한 야웨의 관심과 연결된다.²⁹ 11절은 이것을 3가지로 정리한다. ‘이는 그들이 다시는(עוּ)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עוּ)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11절). 여기에서 2번의 עוּ(오드/다시)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온

28 대니얼 블록, 윗글, 527.

29 Walther Zimmerli, 윗글, 309.

전한 회복에 대한 야웨의 의지를 보여준다.³⁰ 한마디로 과거에는 백성들이 야웨를 떠났지만 이제는 떠나지 않게 할 것이며, 또한 과거에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는 야웨의 결단인 것이다. 그런데 야웨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들과 언약 관계를 형성하겠다고 말한다. ‘그들이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라 되리라’(11b절). 백성들이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야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 야웨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12-23절).³¹ 백성들 각자가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과 같은 벌에서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야웨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지침을 백성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단락은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관심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에스겔 15-17장

에스겔 15-17장은 비유와 언약 파기 모티프를 사용해 야웨와 맺은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심판을 언급한다.³² 이 단락도 문답 형식으로 전개되는데, 특별히 비유와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예루살렘의 무가치함을 부각함으로써 야웨의 심판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에스겔 15장에서 예루살렘의 무가치함은 포도나무와 관련된 수사적 질문을 통해 강조된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

30 Paul M. Joyce,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70.

31 김창대는 에스겔 14장이 “거짓 예언자를 의지하며 복을 받으려는 기본적인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라고 말한다. 김창대, *율글*, 184.

32 고완(Donald E. Gowan)은 에스겔 15-17장을 예루살렘의 죄와 멸망에 대한 알레고리로 구성된 하나의 단락으로 본다. Donald E. Gowan, *율글*, 63-69.

이라 …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2-5절). “내가 수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땀감이 되게 한 것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 같이 할지라”(6절). 이러한 수사적 질문을 통해 예루살렘 주민들의 무가치함과 야웨의 심판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그러면 왜 주민들이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이 에스겔 16-17장에 언급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³³ 여기에 언약 파기 모티프가 사용된다. 백성들의 언약 파기로 인해 그들이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앞에 배치되고 회복의 메시지가 뒤에 배치되는데, 이 2개의 메시지 속에 끊임없이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앞 단락(겔 8-11장)에서 강조된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 여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단락도 ‘백성들의 불평 + 야웨의 답변’의 형식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1) 심판의 메시지

에스겔 16장은 언약 파기 모티프를 사용해 예루살렘 백성들의 야웨에 대한 반역과 그로 인한 심판을 강조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백성들의 반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야웨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강조되고 있다. ‘야웨의 사랑’과 ‘백성들의 반역’을 함께 배치하여 철저하게 야웨의 사랑이 백성들에 의해 거부당했음을 부각한다.³⁴ 야웨의 사랑은 도입 역할을 하는 1-14절에 언급되고, 백성들의 반역은 15-59

33 Lamar E. Cooper, *Ezekiel*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 1994), 167; Donald E. Gowan, *읽기*, 65.

34 Lamar E. Cooper, *읽기*, 167-168.

절에 자세하게 묘사된다.

먼저 1-14절은 인간의 일생에 비유해 예루살렘과 야웨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야웨의 사랑과 관심을 강조한다. 야웨께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예루살렘을 데려다가 정성껏 키우고 입혔다는 것이다. ‘나는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았다’(וַאֲרָאָה, 6a절). ‘나는 피투성이가 된 너에게 살아있으라 말하였다’(וַאֲמַר, 6b절). ‘나는 너를 들의 짝처럼 많이 하였다’(וַתְּחַיֶּה, 7a절). ‘나는 너의 별거 벗은 것을 가려주었다’(וַאֲכַסֶּה עֲרוֹתַי, 8a절). ‘나는 너에게 맹세하고, 나는 너와 언약을 맺었다’(וַאֲשָׁבַע לְךָ וְאָבֹא בְּבְרִית אִתְּךָ, 8b절). 다양한 1인칭 표현을 사용해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사랑과 관심이 지극했음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8b절은 야웨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둘 사이에 언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9-14절은 이러한 언약 관계가 야웨의 부단한 도움과 관심으로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이들의 화려했음과 명성이 이방에 퍼졌음을 강조한다. 모든 것이 야웨의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59절은 배은망덕하게도 백성들이 야웨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고 말한다.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행한 것처럼 내가 네게 행하리라.’ 백성들의 언약 파기로 야웨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야웨의 사랑과 백성들의 반역이 대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단락이 백성들의 불평(‘야웨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에 대한 야웨의 답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야웨가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이며,³⁵ 백성들이 땅을 잃은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행한 언약 파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상숭배(15-22절)와 강대국 의지(23-59절)이다. 야웨를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35 윗글, 168.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을 묘사하면서 이 단락은 과거 야웨가 백성들에게 행했던 야웨의 은혜와 관심을 강조한다. ‘야웨의 관심’과 ‘백성들의 죄악’이 함께 배치되어 심판의 메시지를 구성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웨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야웨를 배반하였음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죄악과 관련된 표현에 잘 드러난다(15-22절). ‘내가 너에게 준 나의 금과 은 장식품으로 너는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였다’(17절). ‘너는 나의 기름과 나의 향을 그들 앞에 바쳤다’(18절).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음식물을 … 너는 그들 앞에 바쳐 향기로 삼았다’(19절). ‘내가 나의 아들을 죽여 그들을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21절). 어리석게도 백성들이 야웨의 것을 우상에게 드렸음을 강조한다.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야웨께서 베푸는 것들이 오히려 우상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역 행위는 강대국 의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강조된다(23-34절). 야웨는 예루살렘을 양육하여 화려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화려함을 음행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였다”(25절). ‘네가 하체가 큰 너의 이웃 애굽 사람과 음행하였다’(26절). ‘네가 만족하지 못하여 앗수르 사람과 음행하였다’(28절). ‘네가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음행하였다’(29절). 여기에서 ‘음행했다’라는 표현은 백성들이 야웨를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말이다. 야웨가 준 화려함을 미끼로 삼아 음행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배은망덕한 삶을 산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이들의 음행은 주변국보다 더 심각하였다.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47절).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행하지 아니하였다”(51절).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 [사마리아]과 아우[소돔]를 의롭게 하였다”(52절). 이처럼 이 단락은 야웨

의 사랑과 관심을 백성들의 반역과 대조하여, 또는 백성들의 반역을 주변국과 비교함으로써 당시 백성들의 죄악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강조한다.³⁶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땅을 잃은 이유가 아웨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부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백성들의 반역이 아웨의 심판을 가져온 것이며, 그로 인해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에스겔 17장은 이러한 사실을 비유(1-10절)와 비유에 대한 해석(11-18절)을 통해 더 명확하게 보충한다. 한마디로 심판이 철저하게 백성들의 언약 파기에 기인한다는 것이다.³⁷ 1-10절은 첫 번째 큰 독수리(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던 포도나무(유다)가 두 번째 큰 독수리(애굽)를 의지하면 첫 번째 큰 독수리가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아 말라 죽게 한다는 비유이다. 11-21절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으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설명한다. 바벨론과 언약을 맺은 유다의 왕이 언약을 파기하고 애굽을 의지한다면 당연히 바벨론의 침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11-18절). 언약 파기로 인한 심판을 강조한다. 이것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15절).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 죽을 것이라”(16절).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18절). 언약 파기가 심판과 죽음의 이유임을 명확히 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유와 비유 해석을 통해 언약 파기가 심판의 이유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이 아웨와의 언약 파기에 기인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³⁸ “그러므로 …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 거기에

36 대니얼 블록, 윗글, 641-642.

37 Donald E. Gowan, 윗글, 67-69.

38 대니얼 블록, 윗글, 680-684.

서 심판할지며”(19-20절).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야웨의 무관심 때문도 아니고, 야웨가 그 땅을 버려서도 아니라는 것이다.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회복의 메시지

이러한 야웨의 답변은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더 강화된다. 왜냐하면 에스겔 16장과 17장의 뒷부분에 배치된 회복의 메시지가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관심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기 때문이다. 마치 심판의 메시지에서 못다 한 답변을 보강하는 느낌을 준다. 이것은 에스겔 16장 60-63절과 17장 22-24절에 언급된 회복의 메시지와 뒤(겔 33-48장)에 언급된 이와 유사한 회복의 메시지를 비교하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첫째로 에스겔 16장 60-63절을 살펴보면, 영원한 언약에 관한 메시지를 볼 수 있다.³⁹ 이와 유사한 표현이 에스겔 37장 26절에 나타나는 데(겔 34:25 참조), 둘을 비교하면 전자의 독특한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과 관련된 야웨의 신실하심에 관한 것이다. 야웨는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60절)고 말한다. 야웨께서 과거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잊지 않고, 현재까지 기억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 야웨가 백성들에게 관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⁴⁰ 이렇게 함으로써 ‘야웨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백성들의 불평이 그릇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야웨의 관심은 63절에서 한 번 더 부각된다. ‘네

39 아이히로트는 이 단락이 본래 독립적인 것으로 제2차 포로 다음의 첫해에 집필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침멸리는 이 단락이 본래적인 것으로 결론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아이히로트, 윗글, 259; Walther Zimmerli, 윗글, 352.

40 대니얼 블록, 윗글, 648.

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리라.’ 야웨의 끝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 백성들이 다시는 야웨에게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용서한다’(כָּפַר)라는 말은 ‘정화한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⁴¹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앞에서 강조된(겔 8-11장)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를 정화하여 그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겠다는 야웨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이 단락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관심을 부각하고 있다.⁴² 이와 유사한 에스겔 37장 26a절의 영원한 언약에 관한 메시지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야웨와 백성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도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관심도 강조되지 않는다. 단지 둘 사이가 평화의 언약 관계로 맺어질 것이며,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만이 강조된다.

둘째로 에스겔 17장 22-24절을 살펴보면, 미래의 왕에 관한 메시지를 볼 수 있다.⁴³ 이와 유사한 표현이 에스겔 37장 24-25절에 나타나는데(겔 34:23-24 참조), 둘을 비교하면 전자의 독특한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야웨의 주권에 대한 강조 여부이다.⁴⁴ 이것은 3단계로 전개된다. 1단계는 야웨에 의한 새로운 왕의 임명에 관한 것이다.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

41 대니얼 블록, 윗글, 653-654; 박철우, 윗글, 333-334; 김창대, 윗글, 214.

42 블록(Daniel I. Block)은 이 단락에 언급된 회복의 메시지는 독특한데, 그 이유가 야웨께서 구약의 어떤 예언서에도 나타나지 않는 표현으로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대니얼 블록, 윗글, 648-649.

43 쿠퍼(Lamar E. Cooper)는 이 단락(겔 17:22-24)이 에스겔 16장 60-63절에 언급된 메시아적 희망의 주제를 정교화 한다고 보았다. Lamar E. Cooper, 윗글, 182.

44 아이히로트는 에스겔 17장 22절의 ‘연한 가지를 심는다’라는 표현을 통해 야웨께서 백성들에게 역사를 주재하는 자신의 힘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아이히로트, 윗글, 272.

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22절). 이 비유에서 ‘연한 가지’는 야웨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의미한다.⁴⁵ 야웨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야웨와 맺은 언약을 굳건히 지키는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2단계로 야웨가 이러한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백성들에게 풍요로움과 안정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23절). 야웨의 의도가 철저하게 백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추어져 있다.⁴⁶ 야웨께서 백성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순종적인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이다. 백성들의 불평이 그릇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불평을 일삼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야웨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24절). 이처럼 3개의 단계는 야웨의 주권을 강조하는 가운데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사랑과 관심을 부각한다. 이와 유사한 에스겔 37장 24-25절은 미래의 왕에 관해 언급은 하지만, 야웨의 주권과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관심을 부각하지는 않는다.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어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מֶלֶךְ)이 되리니 …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מֶלֶךְ)이 되리라.”⁴⁷ 이처럼 두 본문 모두 미래의 왕에 관해 언급은 하지만 표현이나 내용에 있어서 큰

45 김창대, 율글, 220.

46 아이히로트, 율글, 273.

47 자세한 논의를 위해 박혜경, “에스겔의 나무와 요시아 종교개혁: 에스겔 37:15-28에 나타난 상징과 역사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0집 (2012년 4월), 59-82; 권오현, 『에스겔의 예언과 신학 연구 3』 (서울: 한마음세계선교회 출판부, 2007), 67-71 참조.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전자가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으로 기획되었음을 방증한다.

4) 에스겔 18-19장

에스겔 18-19장은 애가와 의인-악인 모티프를 사용해 야웨의 심판의 공평함을 강조한다.⁴⁸ 이 당시 백성들은 야웨의 심판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였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겔 18:25a).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겔 18:29a). 그러면서 백성들은 그들의 고난이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겔 18:2).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겔 18:19a). 이처럼 당시 백성들은 야웨의 심판에 대해 의심하며 불평하였다. 그리하여 야웨는 백성들의 불평과 의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 단락은 백성들의 불평과 의심에 대한 야웨의 답변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백성들의 불평/의심 + 야웨의 답변’ 구조를 통해 야웨의 심판의 공평함을 변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관심이다. ‘야웨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라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답변이 추가되고 있다. 특별히 이것은 회복을 위한 권고의 메시지에 잘 드러난다.

48 스위니(Marvin A. Sweeney)는 에스겔 18-19장의 양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개인의 행위에 의한 심판을 다룬다는 점에서 하나의 단락으로 묶을 수 있다고 보았다. Marvin A. Sweeney, 윗글, 51.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을 위한 권고의 메시지

에스겔 18장은 야웨의 심판의 공평함에 대한 백성들의 의문에 대해 야웨가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특별히 의인-악인 모티프를 통해 설명한다. 이것은 3단계로 전개된다. 1단계는 야웨의 공평함을 속담(‘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설명한다(1-4절). 조상의 죄로 인해 후손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범죄하는 영혼이 죽을 것이다”(4절)는 표현을 통해 야웨의 공평함을 강조한다. 2단계는 야웨의 공평함을 3대(아버지, 아들, 손자)의 삶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의인-악인 모티프가 사용된다(5-20절). 앞에서 심판의 기준에 대해 제시했다면, 여기에서는 그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다. 즉 의인의 삶을 산 1대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5-9절), 가증한 행위를 한 2대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10-13절), 반대로 의인의 삶을 산 3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14-18절).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다는 말이다. 개인적인 책임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야웨는 공평하다는 것이다. 3단계는 야웨의 공평함을 의인과 악인의 삶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만약 의인이 악을 행하면 의인도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악인이 의를 행하면 악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21-29절). 심판의 기준이 개인의 삶의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됨을 주장한다. 이러한 3단계의 묘사를 통해 야웨가 공평한 분이라는 사실을 부각한다.⁴⁹ 3단계의 묘사가 야웨의 공평함에 대한 변호인 것이다.

49 스프링클(Preston Sprinkle)은 에스겔 18장이 현재의 재앙이 민족(house of Israel)의 책임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평함을 옹호한다고 보았다. Preston Sprinkle, "Law and Life: Leviticus 18,5 in the Literary Framework of Ezekie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1 (2007), 281-285.

그런데 이러한 공평함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관심이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23절). 야웨께서 의인은 물론 악인의 생명까지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악인이 죽은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야웨는 백성들의 상식을 넘어서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내가 어찌 … 조금인들 기뻐하랴 …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אֲנִי ... כִּי־אֶחְבֵּד אֶת־עַמִּי)와 같은 수사적 질문은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사랑과 관심이 지극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관심은 30-32절의 권고의 말씀에서 더 강조되고 있다.⁵⁰ 특히 권고와 관련된 3개의 표현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첫째는 회개와 관련된 권고이다. ‘너희는 돌이켜 모든 죄로부터 떠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30b절). 2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백성들의 죄악에서의 구원에 맞추어져 있다. 특별히 ‘돌이키라’(שׁוּבוּ)와 ‘떠나라’(הִשָּׁבוּ)는 명령형 동사들은 백성들이 더는 죄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야웨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야웨가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죄악의 문제까지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둘째는 변화와 관련된 권고이다. 죄악의 문제를 넘어 백성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야웨의 관심을 드러낸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품어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31절). 2개의 명령형 동사 ‘버려라’(הִשָּׁלֵךְ)와 ‘품어라’(עָשָׂה)를 사용해 야웨는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과거 죄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야웨의 간절함은 뒤에 언급된 수

50 Lamar E. Cooper, 윗글, 193.

사적 질문을 통해 다시 강조된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백성들이 살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배어 있는 야웨의 탄식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백성에 대한 야웨의 관심을 부각하는 것이다. 셋째는 결단과 관련된 권고이다.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주 야웨의 말이니라. 너희는 회개하고 살지니라’(32절). 여기에서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사랑과 관심은 최고조에 달한다. 이 당시 백성들은 가증한 행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죽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런데 야웨는 이들이 죽는 것조차도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을 살려야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야웨는 결단을 촉구한다. 여기에서도 2개의 명령형 동사 ‘회개하라’(חֲבוּרָה)와 ‘살아라’(חַיֵּה)가 사용된다. 이처럼 이 단락은 동일한 구조를 사용해 백성들의 불평에 야웨가 답변하는 형식을 취한다.

에스겔 19장은 애가 형식을 통해 야웨의 공평함을 설명하는데, 지도자의 운명에 초점을 맞춘다.⁵¹ 이 당시 백성들은 야웨의 불공평으로 인해 땅이 폐허가 되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불평에 대한 답변을 위해 에스겔 18장에서 야웨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심판받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제 에스겔 19장에서는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심판받는다고 강조한다. 이것을 위해 2가지의 비유가 사용된다. 하나는 암사자의 비유이다(1-9절). 1-4절은 암사자가 키우던 젊은 사자(여호아하스)가 갈고리에 꿰어져 애굽으로 끌려갔다고 말하며, 5-9절은 암사자가 키우던 다른 젊은 사자(여호야긴)가 갈고리에 꿰어져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갔다고 말한다.⁵² 이것은 유다의

51 자이츠(Christopher R. Seitz)는 에스겔 19장의 애가가 에스겔의 다윗 왕조의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요약이라고 본다. Christopher R. Seitz, *Theology in Conflict: Reactions to the Exile in the Book of Jeremiah*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9), 139.

52 Ronald M. Hals, *윳글*, 129-130; Joseph Blenkinsopp, *윳글*, 84-86.

멸망 과정에서 있었던 왕들의 비극에 관한 묘사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러한 비유 안에 왕들이 비극을 당하게 된 이유가 강조된다.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3절).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6-7절).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폭력과 약탈을 행했다는 말이다.⁵³ 그리하여 이들이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야웨의 공평함을 묘사한다.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 비유이다(10-14절). 여기서 포도나무는 유다를 가리키고, 포도나무 가지는 유다 왕들을 가리킨다.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열매가 많고 무성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지고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포도나무(유다)와 그 가지들(다윗 왕조)이 이렇게 되었는가? 11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것은 교만을 의미한다.⁵⁴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역할을 저버리고 큰 나무와 같은 행세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⁵⁵ 여기에서도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야웨의 공평함을 변호한다. 야웨가 불공평하거나 무관심하여 유다와 유다의 왕들이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 백성들이 심판받게 된 것이지 야웨의 무관심이나 야웨가 땅을 포기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단락도

53 Paul M. Joyce, *윳글*(2007), 147; Christopher R. Seitz, *윳글*, 134.

54 김창대, *윳글*, 232-233.

55 박철우, *윳글*, 368-369; 대니얼 블록, *윳글*, 759.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에스겔 8-19장은 에스겔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락 중의 하나이다. 구성을 보면 환상, 비유, 상징적 행동, 애가, 신탁과 같은 다양한 양식이 뒤섞여 야웨의 말씀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백성들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불평과 의심과 속담이 질문 형태로 혹은 그들의 삶이 수사적 질문 형태로 어우러져 나타난다. 한마디로 이 단락은 필요한 장소에 백성들과 관련된 질문(불평과 의심)을 배치하고, 이러한 질문에 야웨가 답변하는 구조를 취한다. 그런데 야웨의 답변이 긴 심판의 메시지와 짧은 회복의 메시지 형식으로 주어지는데, 특별히 전자에서 못다 한 답변이 후자에서 보충되고 있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짝을 이루어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야웨의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에스겔 8-19장에 나타난 회복의 메시지는 후대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본래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에스겔 8-19장은 4개의 단락(겔 8-11장; 12-14장; 15-17장; 18-19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스겔 8-11장은 환상과 예루살렘 심판 모티프를 사용해 백성들의 불평(“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에 답변하고 있는데, 심판의 메시지는 가증한 행위를 행한 백성들의 죄악을 부각하고, 회복의 메시지는 백성에 대한 야웨의 사랑과 관심을 부각한다. 에스겔 12-14장은 상징적 행동과 묵시 모티프를 사용해 백성들의 의심(“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나”)에 답변하고 있는데, 특별히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에서 거짓 선지자들 및 그들

과 관련된 우상 숭배자들의 심판을 다룬다. 그런데 여기에 백성에 대한 야웨의 사랑과 관심이 강조된다. 첫 단락에 언급된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 15-17장은 비유와 언약 파기 모티프를 사용해 수사적 질문(“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 불에 던질 땀감이 될 뿐이라”)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데, 심판의 메시지는 언약을 파기한 자들의 징벌을 부각하고, 회복의 메시지는 백성에 대한 야웨의 사랑과 관심을 부각한다. 여기에서도 첫 단락에 언급된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 계속된다. 에스겔 18-19장은 애가와 의인-악인 모티프를 사용해 백성들의 의심(“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에 답변하고 있는데, 심판의 메시지는 야웨의 공평함을 강조하고, 회복과 관련된 권고의 메시지는 백성들에 대한 야웨의 사랑과 관심을 부각한다.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에스겔 8-19장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야웨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오현, 「에스겔의 예언과 신학 연구 1」 (서울: 한마음세계선교회출판부, 2007).
 권오현, 「에스겔의 예언과 신학 연구 2」 (서울: 한마음세계선교회출판부, 2007).
 권오현, 「에스겔의 예언과 신학 연구 3」 (서울: 한마음세계선교회 출판부, 2007).
 김창대, 「에스겔서의 해석과 신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대니얼 블록, 「에스겔 I」 (신윤수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원제 Block, Daniel I., *The Book of Ezekiel, Chapters 1-24*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7).
 라이너 알베르트, 「포로시대의 이스라엘」 (배희숙 옮김), (고양: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6). 원제 Albertz, Rainer, *Die Exilszeit vor 6. Jahrhundert v. Chr* (Stuttgart: Kohlhammer GmbH, 2001).
 레슬리 C. 알렌, 「에스겔 1-19」 (김경열 옮김), (서울: 솔로몬, 2009). 원제 Allen,

- Leslie C., *Ezekiel 1-19* (WBC 28;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4).
- 박철우, 「에스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박혜경, “에스겔의 나무와 요시아 종교개혁: 에스겔 37:15-28에 나타난 상징과 역사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0집 (2012년 4월), 59-82.
- 송병현, 「에스겔」(서울: 도서출판 이엠, 2017).
- 아이히로트, 「에제키엘」(강원돈/김상기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원제 Eichrodt, Walter, *Der Prophet Hesekie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 윤동녕, “에스겔서에 사용된 ‘허탄한 목시’(אִשִּׁיץ הַיִּזְרְיָהּ/하준 샤프)의 의미와 기능 연구: 에스겔서 13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3집 (2014년 9월), 198-222.
- 한동구, “에스겔의 성전 비판과 야웨의 성전되심(겔 8-11장)”, 『구약논단』 56집 (2015년 6월), 9-37.
- Blenkinsopp, Joseph, *Ezekiel*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Cooper, Lamar E., *Ezekiel*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 1994).
- Darr, Kathryn P., “The Book of Ezekiel”, Leander E. Kect et al.(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ume 6*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1073-1607.
- Gowan, Donald E., *Ezekiel*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 Greenberg, Moshe. *Ezekiel 1-20* (AB 22;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3).
- Hals, Ronald M., *Ezekiel* (FOTL 19;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9).
- Joyce, Paul M., *Ezekiel: A Commentary* (New York: T&T Clark, 2007).
- Joyce, Paul M.,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 Raitt, Thomas M., *A Theology of Exile: Judgment/Deliverance in Jeremiah and Ezekiel*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7).
- Renz, Thomas,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Boston: Academic Publishers, Inc., 2002).
- Seitz, Christopher R., *Theology in Conflict: Reactions to the Exile in the Book of Jeremiah*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9).
- Sprinkle, Preston, “Law and Life: Leviticus 18,5 in the Literary Framework of Ezekie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1 (2007), 275-293.

Sweeney, Marvin A., *Reading Ezekiel*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Inc., 2013).

Sweeney, Marvin A., *Form and Intertextuality in Prophetic and Apocalyptic Literature* (Tübingen: Mohr Siebeck, 2005).

Vawter, Bruce and Leslie J. Hoppe, *A New Heart: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zekiel*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1).

Zimmerli, Walther, *Ezekiel 1*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검색어

에스겔 8-19장, 에스겔 8-11장, 에스겔 12-14장, 에스겔 15-17장,
에스겔 18-19장, 구원신약, 심판신약

[ABSTRACT]

The Structures and Messages of Ezekiel 8-19: Focusing on the People's Complaints and Yahweh's Answers

Rae-Yong Kim
Hyup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tructures and messages of Ezekiel 8-19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s case and Yahweh's answer. To this end, we divide Ezekiel 8-19 into four units (Ezekiel 8-11; 12-14; 15-17; 18-19), and analyze the contents, structures, and expressions of each unit. Looking at the structures and messages of Ezekiel 8-19, all the units place the questions (complaints and doubts) related to the people, where necessary, and they take the structure of Yahweh answering these questions. However, Yahweh's answer is given in the form of a long message of judgment and a short message of restoration. In particular, the question that was not fully answered in the former is supplemented in the latter. The pairing of the judgment and restoration messages constitutes Yahweh's answers to the people's questions. In this respect, the messages of restoration shown in Ezekiel 8-19 can be seen as original, not added later. Looking at each unit in detail, Ezekiel 8-11 answers the complaints of the people ("The Lord has not seen us, and the Lord has forsaken this land") using the vision and Jerusalem judgment motif. The message of judgment highlights the sins of the people who committed abominable acts, and the message of restoration highlights

www.kci.go.kr

Yahweh's love and concern for the people. Ezekiel 12-14 uses symbolic actions and apocalyptic motifs to answer the people's doubts ("What about your proverb, the days are delayed and all visions will pass away"), and Ezekiel 15-17 uses parables and covenant-breaking motifs to answer a rhetorical question ("Son of man, how is the vine better than all trees ... it is only fuel to be thrown into the fire"), and Ezekiel 18-19 uses Lamentations and the righteous-wicked motif to answer the doubts of the people ("The way of the Lord is not fair"). However, exceptionally, all the messages of restoration mentioned in the last three units highlight Yahweh's love and interest. The answer is that Yahweh is not indifferent to the people. Yahweh's answer to the complaints of the people mentioned in the first unit continues. In this respect, the messages of Ezekiel 8-19 can be seen as Yahweh's answers to the complaints of the people.

key words

Ezekiel 8-19, Ezekiel 8-11, Ezekiel 12-14, Ezekiel 15-17, Ezekiel 18-19, Salvation Oracles, Judgment Oracles

투고일: 2023년 07월 01일

심사일: 2023년 07월 24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8월 09일

www.kci.go.kr